

2024 국악창작곡개발

'제18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결과

□ 심사 개요

- 심사명 : 2024 제18회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
- 심사일시 : 2024년 5월 2일(목), 13:00~17:00
- 심사장소 : 국악방송 대회의실
- 심사위원 (※가나다순)

번호	이름	주요 프로필
1	김경아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교수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겸임 연구원
2	노선택	- 그룹 '오방신과' 멤버 - 그룹 '노선택과 소울소스' 리더 - 그룹 '그릇' 멤버
3	박인혜	- 판소리아지트 놀애박스 대표 - 2022 문화예술발전유공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고려대, 중앙대 출강
4	여병섭	- 전주 얼티밋 뮤직페스티벌 총감독 - 제1회 MBC대학가요제 대상 수상 - 파라곤애드 대표이사
5	이경섭	- 여주시립국악단 상임지휘자 역임 - 경주시립 신라고취대 예술감독 역임 - 이경섭 장단컴퍼니 대표

○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100점)	심사기준
대중성	30점	- 동시대성의 확보 및 대중 친화도
음악의 완성도	30점	- 노래곡, 연주곡별 구성의 완성도가 높은 곡
독창성과 창의성	20점	- 기존 작품과 구별되는 독창성과 창의성
국악적 요소의 반영	20점	- 국악어법(선율과 장단)이 살아 있는 곡

□ 심사 결과

○ 심사 결과 : 총 20팀 선정 (노래곡 11팀, 연주곡 9팀)

접수번호	팀명	참가곡명	장르구분
9	프로젝트 앙상블 런	압츠가이	노래곡
13	해아노	물노래	노래곡
18	모꼬지	자룡전	노래곡
20	수소는 H	言(언)	연주곡
25	모린	단꿈	노래곡
27	모던국악프로젝트 차오름	혜초가	노래곡
29	퓨전국악 그리샤	세해부정경	노래곡
34	유연	독무	연주곡
35	우리음악연구회 '일하'	Pi나리zza	노래곡
36	이로	아니 노지는 못하니라	노래곡
39	그믐	백색왜성	연주곡
41	별이삼사(*234)	삶과 죽음, 저 너머	노래곡
47	트리거	폭류(暴流)	연주곡
48	구가지트	추락의 춤	연주곡
52	구이임	생(生)	노래곡
53	무작판	부흥	연주곡
55	옴브레스	Ex Nihilo: 무(無)로 부터	연주곡
56	살롱드국악 선율모리	화투타령	노래곡
58	SINAVI	21 범	연주곡
60	완전6도	산세[山勢], SEOUL	연주곡

※ 대회운영지침 제18조 3항 “예선 및 본선 심사결과 발표 후라 하더라도 음반, 공연, 방송 등에 발표한 사실이 밝혀지면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선정된 작품이 추후 대회 운영지침 [별지5-1]에 기준하여 ‘발표곡’으로 밝혀질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주요 심사평 (※가나다순)

이름	심사평
김경아 (심사위원장)	<p>대한민국 음악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21C한국음악프로젝트 1차 예선 심사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p> <p>63팀들의 열정과 혼이 담긴 많은 작품들 속에 한국 음악의 밝은 미래가 보여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p> <p>뛰어난 연주력과 깊이 있는 이해로 전통 음악의 또 다른 멋과 매력을 담은 가치 있는 작품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고, 그중 몇 작품은 세계 무대에 선 보이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p> <p>다만, 전통 음악의 본질을 공부하지 못했거나 등한시한 작품들이 보여 많은 아쉬움이 남았고 연주력과 가창력 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팀들도 보였습니다.</p> <p>이번 경연을 통해 한국 음악 창작곡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p>

<p>노선택</p>	<p>심사에 앞서 심사하는 본인 역시 대중들에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신분이라 누군가를 심사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평을 남깁니다. 전체적으로 참여한 팀들의 음악과 컨셉이 전통 음악이 실용 음악적 문법을 따라가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 음악은 수많은 세월 동안 만들어지고 다듬어진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이 존재하듯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와 아카이빙이 부족합니다. 스타일과 스타일이 만나 매력적인 소리로 귀결되어야 함은 전통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창작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중음악가들은 전통 음악을, 전통 음악가들은 대중음악에 젖어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리듬과 멜로디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음악 시장에서의 경쟁은 좋은 리듬과 멜로디뿐만 아니라 '톤'의 경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가들이 만나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다라도 그에 맞는 옷을 입히듯 리듬과 멜로디의 '톤'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수반되면 좋겠습니다. 샘플링된 비트와 사운드를 차용할 때에도 '왜 이 비트와 이 사운드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철학을 창작의 시작점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통 악기가 가지고 있는 톤은 어마어마한 유산임을 인지하고 한음의 좋은 소리가 공기를 바꿀 수 있음을 느끼며 창작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한반도의 전통 악기와 소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귀한 음악임을 발견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작의 과정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p>
<p>박인혜</p>	<p>정성껏 음악을 만들고 연습하여 대회에 함께해 주신 참가자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 공모에 제출된 음원들을 살펴보니 현재의 국악 창작, 특히 젊은 세대가 인식하고 지향하는 국악 창작의 흐름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지역 팀들이 대회에 출품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이지만 앞으로 전국 각지의 예술가들이 활발하게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한다. 우선적으로 단체가 가진 고유한 음악적 색깔과 창작력이 돋보이는 팀을 선정하고자 했다. 이에 더해 그 음악을 실연할 때의 테크닉이 뒷받침 되는지가 중요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음악적 이상과 실질적인 테크닉이 부합되지 않을 때, 혹은 급하게 타 장르의 연주자들이 모여 호흡을 맞췄을 때의 서로의 악기 및 음색의 특성이 교감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음악을 만드는 것에 우선 국악기와 국악 성악 전공자가 갖고 있는 강점이 창작 음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발현될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다수의 노래곡이 공모에 지원하였는데, 직접 가사를 쓰거나 메시지를 담기보다 기존의 판소리나 민요의 사설 및 선율을 그대로 쓰고 반주만을 편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노래곡이 현재의 감수성과 조우하려면 1차 적으로 가사에 대한 공감의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소리꾼, 보컬이 창작 국악곡을 노래할 때 악기 특성과 음악의 부피에 따라 면밀하게 음색과 악상을 더욱 고민한다면 좋겠다.</p>
<p>여병섭</p>	<p>전체 참가팀이 연주를 국악+밴드+클래식 악기 등으로 합주하였는데, 곡의 컨셉트는 다양하게 잡았음. 모두 창작곡이라서 국악의 대중화라기보다는 국악과 실용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성 연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창작곡은 일반 대중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요소라 저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국악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생소하니 대형 기획사가 만드는 K-POP이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것임.</p>

	단 1곡만이라도 대중들에게 히트할 수 있는, 단 한사람 만이라도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가수 또는 연주자 스타가 나오길 바란다.
이경섭	<p>대부분의 참가팀들의 공통적인 느낌은 창작가 1인에 의해 스코어가 만들어진 곡들은 대부분 한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 창작 되어 지고 연주자들이 습득하기까지 트레이닝 되어 연주가 경직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p> <p>저는 개인적으로 연주자들의 소통이나 영감에서 만들어졌을 법한 곡들이 개인적 취향에 맞았으며, 국악방송의 프로젝트에도 적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젊은 국악인들이 실용음악 연주자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음악적 요소를 무분별하게 섞기만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p> <p>해가 거듭되면서 곡의 완성도가 높거나 자신들의 음악을 드러내려는 노력의 결실이 보여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느껴집니다.</p> <p>젊은 연주자들의 다양한 창작 작업을 통한 결과물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를 응원합니다.</p>

□ 향후 일정

구분	일시 및 장소	비고
2차 예선 진출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2차 예선 안내 및 2차 예선 경연 순서 추첨 - 2차 예선 기술 협의서 작성 안내 등	6월 5일(수), 13:00~ / 국악방송 12층 공개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2, DMS빌딩 12층)	- 팀 대표 또는 작곡가 1-3인 참석 (대기 공간이 협소하므로 팀별 1-3명 참석으로 제한) - 모든 팀 참석 필수
2차 예선 (실연 심사 / 공개)	6월 22일(토) / 국악방송 12층 공개홀	- 10팀 선정

□ 문의처

- 국악방송 21c한국음악프로젝트 TF팀장 02)300-9971 / rose1one@igbf.kr